

한국수의 발달사(8) 조선시대의 수의서적들(4-2)

이시영 | 경마평론가

해동농서(海東農書)

북학의와 과농소초가 등장하던 무렵에 또 다른 농서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해동농서라는 책이다. 이 책은 서호수(徐浩修)에 의해 편찬되었다. 그는 각신(閣臣)으로서 홍제전서(弘濟全書)편찬에도 관여한바 있다. 그는 공사신서를 정리한바 있는 서명옹(徐命膺)의 아들로서 일찍부터 농학연구에 앞장섰고 중국에도 다녀와서 중국문물의 수용에도 일정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해동농서의 농학은 이 시기의 농업문제를 주로 농업기술이나 농업생산력의 발전의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농가집성이나 증보산림경제의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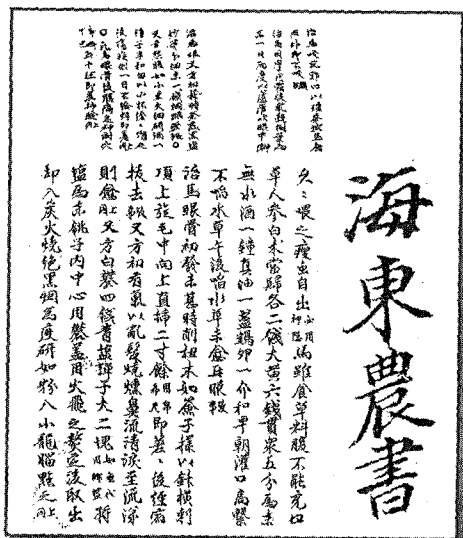
이 책은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목양편(牧養篇)은 5권에 수록되어 있다. 목양편의 내용은 양우(養牛), 양마(養馬), 양양(養羊), 양저(養猪), 양계(養鷄), 양봉(養蜂), 양학(養鶴), 양록(養鹿), 양야금(養野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책들보다는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며, 특히 질병분야를 많이 다루었다. 이는 산림경제나 증보산림경제와 그 내용이

비슷하기에 생략한다.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것은 6권의 조양(造釀)편에 수록되어 있다. 조양편은 각종 술을 빚는 것에서부터 음식물의 중독을 다룬 것이다.

또한 7권에는 치약(治藥)편으로서 호마(胡麻)에서부터 월수(月水; 月經水; 본문에는 한글로 계집의 월경슈라고 기록하였다)에 이르기까지 176가지의 약재에 대해 설명하였다.

海東農書와 治馬편의 일부



治馬諸腹痛多神關反五十壯神驗
 治馬不進水單方鷄卵則一箇搗碎則二箇去殼取
 水真油三合清蜜二合熊胆一錢并大蒜一顆爛研
 豆淋酒取黑豆炒熟投一井和空心灌之至夕先
 煎草料飽後少與水一斗許徐飲之不愈再灌同上
 治馬虫咬重者用葶藶草牛黃一合炒令紫色搗
 如泥素白皮一大握大棗二十枚擘去核以水二升
 煮取一升去渣入葶藶末調勻適度溫灌之隔一日
 又灌重者不過三次神效治馬牙者清如照汁
 者半合而眼灌鼻內每灌一二日將息不得連灌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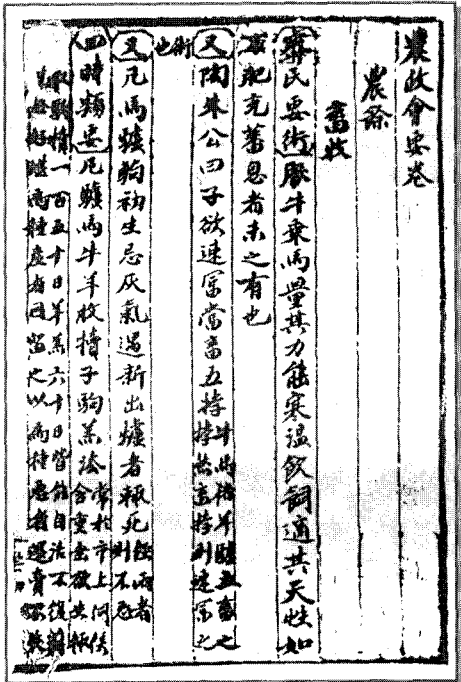
농정회요(農政會要)

1830년대에는 새로운 농업서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는 전의 임금 정조(正祖)가 농업서를 발달시키겠다고 했으나 정조의 사망으로 국가적인 농정서가 발간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농업서를 발간했던 것이다. 그중 하나가 농정회요이며 다른 하나는 임원경제지라고 할 수 있다.

농정회요는 1830년대 순조 30년대에 최한기(崔漢綺)에 의해 편찬되었다. 그는 역시 실학자로서 젊은 시절에 농학에 관심을 가져 많은 농서를 검토하였으며 급기야는 농정회요를 편찬하였다. 이 책의 다른 농서와 같이 기존의 농서를 인용하였다는 것이다. 가장 짚게 인용한 문헌들은 진혜농서(陳惠農書), 주례(周禮), 농상직결(農桑直訣), 보아(甫雅), 상마경(相馬經), 제민요술(齊民要術), 편민도(便民圖), 가정법(家政法),

용어하도(龍魚河圖), 농정전서(農政全書), 사시유요(四時類要), 산림경제, 양생론(養生論), 도주공양어경(陶朱公養魚經), 농포사서(農圃四書)등인데 아마 이러한 농서들이 당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외에도 많은 수의 축산서적들이 구한말까지 존재하면서 농가들이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農政會要의 일부



내용은 다른 농서와 마찬가지로 소를 제일 먼저 실었다. 처음에는 소를 키우는 사양법을 기록하였는데 후편에서는 주로 소의 질병 치료방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말을 다루었는데 상마경(相馬經)에서부터 치마(治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양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무려 5 페이지를 기록하였다. 양의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사양관리법을 위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두 질병치료법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다섯 번째로 돼지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다른 저자들은 모두가 양저(養猪)라고 했지만 이 책에서는 시(豕)라고 표현한 것이 다르다. 대개 우리들은 양돈(養豚)이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양저(養猪) 혹은 '시' 라는 말에는 익숙하지 못한 감이 있다. '저' 라고 하면 괜히 야생돼지를 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다음은 개를 다루었으며, 부록으로 고양이를 다루기도 하였다. 그 외 기러기와 오리 닭들을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물고기도 다루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꿀벌과 학, 매에 관해서도 사양법과 질병치료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대개의 내용은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에서 약간씩 더 추가된 수준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또한 공중보건학 분야는 치선(治膳)분야에서 다루었는데 처음에는 음식창(陰蝕瘡; 남자의 음경에 창이 생겨 자흑색으로 썩는 것)에서부터 각종 음식물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내용면에서는 산림경제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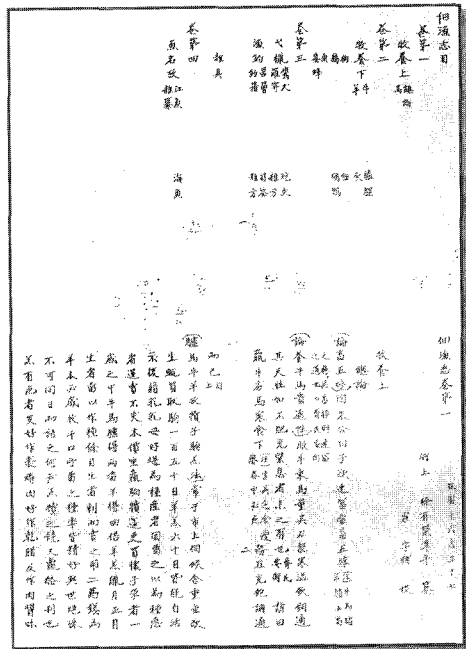
임원경제지(林源經濟志)

이 책은 서유거(徐有棻 1764-1845)에 의해 편찬되었다. 서유거는 해동농서를 편찬한 서호수의 아들이며, 공사신서를 편찬한 서명응의 손자이기도 하다. 그들 가문의 3대가 농사와 관련된 책을 펴낸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기도 하다. 아마 개인적으로 농학이 가학(家學)으로 전수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는 서유거에 의해 1827년(순조 27년)에 vsucks된 농서이다. 내부적으로 16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었기에 속칭 임원십육지라고도 한다. 목축과 관련된 것은 전어지(佃漁志)이다. 전어지는 목축 사냥 고기잡이 등을 다루었는데 1권과 2권은 목양(총론 말 소 양 돼지 개 고양이 닭 물고기 꿀벌)을 다루었고, 3권에서는 사냥(獵)을 위한 것(鷹犬等)등을 다루었으며, 4권은 어명교(魚名巧)로서 강어(江魚) 해어(海魚) 잡찬(雜纂)으로 구성되어 있다.

林源經濟志中 佃魚志의 目次와 本文 일부



전어지 앞의 위선지(魏鮮志)는 각종 점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양을 위한 소나 말 닭이나 오리의 사고 파는 길일이나 피해야 하는 날 혹은 짐승의 우리를 짓는데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전어지 다음인 8권은 정조지(鼎俎志)로서 음식이나 요리 관계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권은 식감촬요(食鑑撮要)로서 水類, 穀類, 菜類, 菓類, 獸類, 禽類, 漁類, 味類 등 오늘날 수의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분야가 기록되어 있다. 2권은 취루지류(炊餼之類; 밥등 음식물), 3권은 음청지류(飲淸之類)로서 주로 국물과 관련된 것, 4권은 교여지류(咬茹之類)로서 주로 채소를 다루었다. 그 외 5권과 6권도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11번째의 인제지(仁濟志)에는 한방의약 전부를 28권에 나누어서 다루었다.

전어지 1권에는 목양편 상이 있는데 먼저 총론에는 론축오패(論畜五疴)라고 해서 오축을 정의하였는데 우마양저려(牛馬羊猪驢)의 다섯 가지 가축을 말한다고 했다. 그 외 논우마귀적성(論牛馬貴適性), 러마우양목독자구양법(驢馬牛羊牧犢子駒恙法), 논소수초의목양(論饒水草宜牧養), 논양동목양지구(論羊東牧羊之具)까지가 총론적이다.

다음에 말(馬)편이다. 명품(名品), 상법(相法), 조양총론(調養總論), 취종법(取種法), 위법(餵法), 사부마령부투법(飼父馬令不鬪法), 사정마령경실법(飼征馬令硬實法), 획기법(劃鼻法), 거록법(去擻法), 선마법(馴馬法), 방목법(放牧法), 방혈법(放血法), 어법(御法), 의기(宜忌), 험병유무법(驗病有無法), 논오로(論五勞), 의치(醫治; 말의 질병 치료방)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마지막의 의치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

하는데 총 93개의 질병에 대한 증상과 치료방을 기록하였다. 특히 이는 과거의 난해한 질병명보다는 이해가 쉬운 질병명으로 바뀐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피부병(皮膚病)이라던가 부제병(腐蹄病) 등이 표기되어 있다.

2권에서는 소(牛)편이다. 명품(名品), 상법(相法), 조양총론(調養總論), 위법(餵法), 경법(耕法), 의치(의치(醫治; 소의 질병 치료방)이다. 여기에는 총론 외 27개의 질병 치료방이 소개되고 있다.

려나(驢騾; 나귀와 노새)편은 명품(名品), 취종법(取種法), 사법사려지법(飼法飼驢之法), 논려의타급(論驢宜馱汲), 의치(醫治; 나귀와 노새의 치료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이 소개되어 있다.

양(羊)편은 명품, 사양총론, 작봉법(作棚法), 위법(餵法), 방목법(放牧法), 교법(絞法), 의기(宜忌), 험병법(驗病法), 의치(醫治; 양의 질병 치료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이 소개되어 있다.

돼지(豕)편은 명품, 사양총론, 해양법(害養法), 의기(宜忌), 의치(醫治; 돼지 질병 치료방)이 기록되어 있는데 질병은 단 2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猪라던가 豚이라는 한자대신 豕라는 한자를 사용하였다.

개(狗)편은 명품, 상법, 의치로 되어 있는데 의치에는 8개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방이 나와 있다.

고양이(猫)편은 명구(名區) 상법, 령잉자법(令孕子法), 납묘법(納猫法), 의치로서는 3종의



질병 치료방이 소개되어 있다.

닭(鷄)편은 명구, 취중, 제거(制居), 양법(養法), 자양(孳養), 양계속비법(養鷄速肥法), 곡산법(穀産法), 양생계법(養生鷄法), 의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질병으로서는 5개가 소개되어 있다.

오리(鵝鴨)편은 명구, 상법, 취중, 자양, 잔아비법(棧鵝肥法), 곡산법으로 되어있으며 치료방은 없다.

물고기(魚)편은 명구, 양리법(養鯉法), 육어잡법(育魚雜法), 취앙법(取秧法), 의호(衣護), 의치로 되어 있는데 개나 고양이 닭등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특히 육어잡법에는 약 5페이지에 달하는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의치에는 한가지 치어번박방(治魚翻白方)이 기록되어 있다.

꿀벌(蜜蜂)편은 명품, 축봉총법(畜蜂總法), 분봉왕법(分蜂王法), 접봉법(接蜂法), 안구법(安法), 할밀법(割蜜法), 험밀법(驗蜜法), 의기(宜忌), 관방(關防)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편은 없다.

제3권은 익렵(獵; 수렵)편으로 사냥을 위한 매(鷹)와 개(犬)이 기록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앞 편의 개는 狗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냥편의 개는 犬으로 표시된 것이다.

매(鷹)에 관해서는 취응법(取鷹法), 상응(相應), 훈응법(訓鷹法), 진응법(陳鷹法), 응렵법(鷹獵法), 치응병방(治鷹病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는 령구(獵狗)라는 항목을 두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냥개를 견이라고 하는데 '사냥용

개' 라고 표기할 때는 령구라 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상렵구법(相獵狗法), 사렵구법(飼獵狗法), 훈렵구법(訓獵狗法)등이 있으며 그 외는 모두가 짐승이나 야생조류를 사냥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들면, 탄환 만드는 법에서부터 각종 짐승, 호랑이 사냥법등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다.

열하일기(熱河日記)

열하일기는 수의 축산서라고 하기보다는 나라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과제들을 다루었는데 여기에 수의축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 소개하는 바이다.

당시 실학파의 거두인 박지원은 정조 4년(1780) 청나라에 들어가 성경(盛京) 북평(北平) 열하(熱河)등지를 돌아보고 이 책을 엮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일기형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의 농업과 마정등 수의축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문제제점과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

제6편에 태학유관록(太學留館錄)은 태학관을 방문 후 느낀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내가 문을 나오니 문밖에 수 백 마리의 말떼가 지나가는데 한 목동이 꽤 큰말을 타고 옥수수대 하나를 들고 뒤따라간다. 또 소 30-40두가 지나가는데 모두 코를 꿰지 않았고, 뿔도 붙들어 매지 않았다. 뿔의 길이는 모두 한자가 넘겼고 털빛은 푸른 것이 많다. 그 뒤를 나귀들이 수십 마리가 지나가는데 목동이 절구공과 같이 길다란 막대기로 맨 앞에 가는 푸른 소를 힘껏 후러치니 소가 씩씩거리며 천방지축 달려가는데 마치 대오를 지어 가는 듯하다. 아마 아침

방목을 시키러 가는 듯 하다. 천천히 걸으면서 살펴보니 집집마다 대문을 열고 말 나귀 소 양 따위를 몰아내는데 한집에서 적어도 수 십 마리 씩 나온다. 돌아와 태학관 밖에 매어둔 우리나라의 말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내가 일찍이 정석치(鄭石痴; 영조 때의 화가인 鄭喆祚)와 우리나라 토산말 값의 싸고 비쌌을 이야기 할 때 ‘몇 십년 안가 담배통을 구유로 하여 베갯머리에서 말을 키우게 될 것일세’ 하니 석치가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내가 웃으면서 ‘계속 늦가을 병아리로 씨받이하여가면 45년 후에는 베개 속에서 울게 된다고 하여 이를 침계(枕鷄)라 하지 않는가. 말도 마찬가지로 일세 종자가 작으데 점점 더 작아져서 침마(枕馬)가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베개 속에서 닭우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그 침마라는 것을 타고 뒷간엘 가면 아주 좋을 것일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말 교미시키기를 꺼리므로 말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정모 정빈(貞牡 貞牝; 숫총각 숫처녀)으로 있네. 지금 나라안에 수 만 마리의 말이 있지만 교미를 시키지 않으니 말의 번식하지 못하여 해마다 만 여 마리의 말을 잃으니 몇 십 년이 안가 침마까지도 종자가 마를 걸세’ 하여 서로 웃으며 농담을 한일이 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난한 것은 목축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다루는데 일곱 가지 한심한 일이 있다고 열하일기에서 적고 있다 1. 기마병들이 적과 싸울 때 과하마(果下馬)와 같은 말을 타고 싸운다는 것. 2. 궁중의 말들이 모두가 중국산이라는 것. 3. 임금을 수행하는 백관들은 남의

말을 빌려 타고 다니는 것. 4.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집에 수레가 과연 몇 대가 있을까. 5. 군인들이 연습할 때 말이 없어서 말을 남의 말을 빌려 연습하는 것. 6. 팔도에 있는 기병들이 이름만 기병이라는 것. 7. 역원에 있는 말들은 모두가 토산품 중에서 나온 것인데 그들 말이 끄는 가마로 사신과 같은 귀빈을 모실 때는 가마가 흔들리지 않게 하인 네 사람이 가마채를 짓누르므로 그 말이 견뎌 낼 수 없다는 것 등이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괴이한 말 다루는 법과, 좋은 말 만드는 법,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군인들의 기마 자세등에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수의사도 비난하였다. 말 거세를 할 줄 모르는 수의사가 있기에 침마가 생겨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레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수구파들은 이를 듣지 않았다.


서양수의학의 도입

어쨌든 우리 수의서적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차츰차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조선조 말기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상 살펴본 수의서적 이외 새로이 시도되는 수의서적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조선조 말기 대한제국 시기는 일본의 영향을 받는 시기였기에 일본의 새로운 학문이 우리나라를 뒤덮다시피 하고 있다.

대한제국의 정부조직법에 농상공아문(農商工衙門; 농림부와 상공부)의 농무국(農務局)의 농사과(農事課)에서 수의와 축산을 다룬다고 했기에 조선조 초기의 마의(馬醫)라는 용어는

이제 볼 수가 없어지고 대신 수의(獸醫) 혹은 1등수의 혹은 3등수의 등의 근대계급으로서의 용어가 관보에 등장하게되며 군부(軍部; 국방부)에는 군무국(軍務局)에 마정과(馬政課)를 두었고 한국주둔 일본군사령부 포병대에 수의라는 관직명이 등장하기도 한다. 일본의 육군사관학교를 본 판 육군무관학교에서 신식 일본식 교육을 받는 학도들이 서양식 마학(馬學)을 배우게 된다. 마학교정(馬學教程)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수의서적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름하여 마학(馬學), 마학휘편(馬學彙編), 수의학사제요(獸醫學史提要), 군제학교정(軍制學教程)에서의 수의사의 양성과정과 역할, 군대내무서(軍隊

內務書) 야외요무령(野外要務令), 전술학교정(戰術學教程), 육군예식(陸軍禮式), 보병조전(步兵操典)에서 등장하는 수의사의 역할 등 급변하는 시기를 맞기도 한다.

이중 마학교정과 수의학사제요 및 마학은 한자와 일본의 가다가나로 쓰여져 있으나 마학휘편은 중국식으로 완전히 한자로만 쓰여져 있다. 나머지는 비록 일본의 자료를 번역한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 우리의 문체와 같은 한자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위에 열거한 대한제국시대의 수의서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李始永; 경마평론가) 

자가 손상 방지용 향균 고미제

온드가드

Virbac

1. 특징점.

▶ **향균, 항곰팡이 작용.**

감염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 **쓴맛 나는 고미제.**

쓴 맛이 강하여 감염 부위나 수술 부위를 핏는 것을 방지하며 상처 치유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 **약간의 국소 마취 성분.**

자가 손상 방지를 하며 정상적인 상처 치유를 도와 줍니다.

▶ **스프레이 포장.**

상처부위에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효능 및 효과.

수술 및 상처 치유 시 동물의 자가 상처 및 상처부위를 예방하는 고미제

3. 용법 및 용량.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준다.

상처 및 감염부위나 수술 부위에 적용 하며 매일 3회 이상 적용 한다.

2cm의 적용 부위마다 1회 3~4회씩 분무(pumps) 한다.